

93년 제 7기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상반기 총회와 과제

-서여대협 간부 여러분께-

지주 민주 통일진군 49년 10월

서여대협 중앙운영위

총회에 들어가며

“제 7기 서여대협은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디까지 달려왔나?”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상반기 총회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더라도 상반기를 총회하지 않고 하반기를 고민했을 때 하반기에 공백상태가 꽤나 길어지고 그때 그때 제기되는 사안과 투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흐름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현상을 바꾸어보자는 뜻입니다.

또한 현재 각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94년 전망을 내오는 사업이 몇가지 파편적인 문제의식에서 뽑아지는 공약에서 나아가서 전반적인 여학생회의 사상, 조직, 대중운동에 대한 총화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총회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서여대협 총회는 5월에 세운 총노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서여대협 역사상 처음으로 일관된 방향과 노선을 세운 총노선이니만큼, 부족하지만 그에 근거하여 상반기를 총회하려고 하였습니다.

93년 상반기 서여대협 총노선의 핵심 문제의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여대협을 나의 조직으로! 여학생회를 여학우의 생활 속으로!”

서울지역 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을 여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서여대협, 서울지역 여학생회의 결집체여야 하는 서여대협은 6기를 거치오면서도 아직 간부들로부터 ‘남의 조직’이란 식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여학우들과 생활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각학교의 총여와 기총여학생 단위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각계각층 운동의 대중화라는 93년 구국운동의 요청은 여학생 운동과도 별개일 수 없었고, 제 7기 서여대협 중앙단위는 서여대협이 이제는 서여대협 각학교의 중앙 간부들에게서부터 내조직으로 되어야 하고 여학우들과 생활상의 문제를 함께 하면서 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 대중, 조직운동의 측면에서 각각의 좌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어떤 좌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하려 했으며 또 실제로 얼마나 실천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남겼는가를 평가 총회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서여대협의 상반기 총화는 각학교, 지구와 중앙단위의 활동 내용과 성과, 문제점과 과제가 모두 모아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학교 지구단위에서 동일한 문제의식하에 통일된 방향을 가지고 상반기 총화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서여대협 중앙과 각학교에서 따로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화서에는 서여대협 중앙단위의 평가가 많은데, 학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서여대협 중앙의 평가와 일치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반기 서여대협의 각단위가 실천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사상적 측면에서

1)상반기의 좌표

“간부들 사이의 동일 단결을 바탕으로 여학우들과 집단적 관계를 맺어 갑시다.”

제 7기 서여대협은, 93년 서여대협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은 간부들간의 동일 단결에 있다는 절실한 문제의식하에 이러한 사상적 좌표를 세웠습니다.

간부들의 동일단결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맺고있는 관계를 드높이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나갔는데요, 간부들간의 관계가 서로를 자주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도록 하고 서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정치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그간 여학생 간부들간의 관계가 집단적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되었고, 서로를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각자의 문제에 빠져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상반기 사상운동의 진행과정과 성과

제 7기 서여대협은 상반기에 간부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봅시다.

간부들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학교, 지구, 서여대협 중앙단위 모두 마찬가지이고 궁극적으로는 각 학교 각 단위 간부들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나갈 대책을 세워야만 서여대협 전체 간부들의 변화의 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7기 서여대협 사상운동 수준에서는 서여대협 중앙, 지구 단위에서부터 간부들 관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상반기 사상적 측면에서 좌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중앙, 지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서여대협에서 간부들 사이의 관계문제를 사상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동부지구 몇 개 학교에서는 간부들의 모습이 점점 집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노력들이 더 크게 지구, 서여대협 전체 차원으로 모여지고 넓어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램은 일단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서여대협 중앙단위의 노력을 되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여대협 중앙에서는 각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서 생겨나는 어려움, 나타나는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생활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각자가 더 힘있게 바르게 자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주체 총화를 택했습니다.

중앙운영위에서는 의장 선출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여학생회 일꾼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힘찬 내일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 경험을 이어서 때 회의(1주일 간격)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을 총화하고 서로 이야기해주는 것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예년에 계속 의장과 집행국 사이에 이해도가 높지 못하고 서로 역할이 불분명하면서 드러났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장님과 중집 전원이 참가하는 주체총화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구의장님과 정책국 지구파견자도 지구사업을 총괄하는 지구총화회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주체총화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상 중앙운영위원들이 학교 사업, 지구 사업의 부담이 많은 속에서 서여대협 중앙으로 힘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중앙에서 자신을 서여대협 중앙간부의 위치에서 총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고 했던 노력은 7기 서여대협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중앙운영위의 결속력과 책임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 의장님과 집행국의 이해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에는 그런 노력이 밑받침되어 있었습니다.

3)상반기 사상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

처음 시작하는 사상운동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학생운동에서 사상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총노선을 세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와 각 단위의 고민과 계획을 모아야 한다는 논의를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노선을 세울 때나 그 후에도 학교의 고민과 계획, 성과를 모으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상운동의 내용 자체가 무척 좁아져버렸습니다. 간부들 사이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여나가게 된 것입니다.

4)이후 사상운동의 발전을 위해

각 단위의 고민을 모으지 못했고 조사연구 과정을 밟지 못한 것으로 한계가 많기는 하지만 총화하면서 고민된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우선, 여학생운동에서 사상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각 단위의 고민과 노력, 성과가 한 데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상운동의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여학생운동에서 사상운동이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 여학생 간부들이 바라보는 여학생 운동의 본질, 과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여학생 대중간부로서 여학생운동을 해나가는 자세를 바르게 통일시켜 나가는 운동입니다.

나. 여학우들의 삶의 자세와 의식을 바르게 통일시켜 나가는 운동입니다.

② 사상운동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7. 먼저 여학생간부들 속에서 벌어져야 할 사상운동의 현황부터 봅시다.

여학생간부들이 여학생운동의 본질, 과제,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에는 아직 많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의 본질은 여학생대중의 자주적 운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의 과제는 학원과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그 과제해결의 전제요 신작료가 되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의 본질과 과제, 지위와 역할을 바라보는 데서 나타나는 차이는 전체운동에 복무하는 문제나 학생회와의 관계문제에서 일관된 방향을 갖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자성을 강조해서 전체 정세와 학운의 흐름과 동떨어지고 학생회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거나, 통일성을 강조해서 상층만의 기계적이고 당위적인 결합을 계속해 여학우 대중과 멀어지는 양편향이 수 년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풍부화하는 것임에도 결합의 방도를 적극적으로 내오지 못하고 동떨어져 사업을 진행하여 “총여는 너무 혼자 나간다, 총여는 뭐하고 있냐”는 평을 듣기도 하고(윤금이씨 싸움과 기활하면서도 이 문제는 계속 드러났습니다), 전체 사업에 그저 ‘여학우 여러분’만 앞에 붙인 채 여학우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참여하여 “총여는 여학우들에 근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학생 간부들의 사업속에서는 다음의 모습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집단성이 부족하고 개별적인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몇 학교와 지구에서 집단성이 높아지는 모습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둘째, 대중간부로서 여학생대중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여학우들과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이 부족합니다.

‘폐쇄적’이란 평을 듣기도 하고 때로 여학우들과 동떨어진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여회간부들의 진취성과 여회간부로서 자부심이 높지 못합니다.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다는데 이유가 있지만 여학우 대중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편향을 계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 여학우 사상운동의 현황을 살펴봅시다.

우선 여학우들에 대해서는 여학생 대중이 처한 처지와 조건, 삶의 지향과 이해와 요구, 살아가는 자세와 모습 등이 정확하게 진단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학우들의 모습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80년대 여학우들에 대한 파악이 주를 이루는데, 여학우들의 모습은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부터 생활자세까지 대단히 달라져 있습니다. 모습이 정확히 진단되지 않으므로 여학우들의 올바른 삶, 바람직한 모습을 어떤 것으로 잡는가에 대해서도 통일된 상이 없습니다.

여학생회 사업을 힘있게 펼쳐내는 데서 사상운동의 중요성을 선차적으로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학우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의식화사업이 여학우들에게 맞게 벌어지고 있지 않은 채로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학우들과 함께 사상운동(의식화 사업)을 벌어나갈 내용과 주체가 미약합니다.

여학우들과 함께 할 의식화 내용을 풍부히 연구 조사하고 여학우들의 의식을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주체를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학술-선전-편집부가 각기 분산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파악된 현실에 맞게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선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서여대협 중앙, 각 학교에서 간부의 사상운동의 여학우대중의 사상운동을 책임질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간부 사상운동의 담당자는 간부관리를 주로 하는 사람이면 되겠고, 여학우대중 사상운동에서는 학술-선전-편집부가 서로 내용적 통일성과 협력관계를 높이며 주체로 서나가면 좋겠습니다.

5) 하반기에 할 일

① 여학생 운동에서 사상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활발한 조사연구의 논의로 사상운동의 내용과 현형을 공유하며, 앞으로 서여대협 각 단위에서 고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학운의 본질, 과제, 지위와 역할, 간부들의 사업작풍의 문제에 대한 간부들의 문제의식을 최대한 모으고 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93년을 총화하는 사업(선거와 이월사업)에서 지구와 학교단위가 실천할 수 있는 방도를 모아왔으면 합니다.

② 사상운동을 담당할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서여대협, 각 학교의 이월 작업을 통해서)

2. 조직적 측면에서

1) 상반기의 좌표

“서여대협이 여학우의 조직으로 되기 위해서 먼저 간부들 속에서 구체적인 지도와 살아있는 내용을 마련하자”

상반기 조직운동의 좌표는 이와 같이 잡았습니다. 그 중심적인 문제의식은 “서여대협과 총여학생회는 왜 기층에 근거하지 못하고 골간을 발동하지 못하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좌표는 “서여대협을 간부들 속에서부터 나의 조직으로 받아안읍시다”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모임에 대한 연구조사를 기본으로 여학생모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나갑시다”는 구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런 좌표를 잡게 된 서여대협, 각 학교 총여학생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중운위, 지구운영위 등 서여대협 공간이 강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여대협 1년 방향을 틀어쥐고 매 사업의 입안, 결정, 집행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단위는 선차적으로 서여대협 대중공간 단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장님 선출과정에서도 중운위의 고민보다 중집의 고민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92년 활동 속에서 의장님, 중앙운영위의 집행책임성은 높아졌지만, 명실공히 최고단위로서 기층의 흐름을 모으고 정책논의를 하는 역할을 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서여대협하면 사무국을 떠올려왔던 것이 작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운위, 지구운영위의 논의, 결정사항이 학교의 결의로 통일되지 못하고, 운영위가 안정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 간부들이 서여대협을 회장만의, 또는 다른 사람의 조직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는 서여대협 중운위, 지구운영위가 서여대협의 기본 공간단위로서 제 역할을 해낼 만큼 강화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업 방향이 일관되게 서여대협의 공간단위 강화로 설정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②사무국 역할이 운영위와 혼동되고, 전문화되지 못했습니다.

92년 서여대협 중앙집행부는 사무국 형태로 존재했는데, 중운위, 지구운영위를 보좌하면서 때로 운영위 역할을 대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전문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사건 터질 때마다 일을 나누어 맡는 식으로 사업했기 때문에, 전문화된 역할을 가지고 중운위, 지구, 각 학교 총여 집행부서와의 연계를 모색하지 못했습니다.

③총여 조직기반이 약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90년 이후 총여의 조직기반이 계속 무너져가고, 조직을 강화하려고 하는 주체도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④서여대협 중앙과 각 학교 총여의 분리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을 제외하면 각 학교 집행부들, 단대 간부들은 서여대협이 어떤 조직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는 서여대협 사업이 정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상반기 조직사업의 경과와 성과

가장 우선적으로는 공간단위가 서여대협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작년 간부들로 이루어진 계획소위에서는 작년 사업을 평가하면서 공간단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중앙운영위, 지구운영위 단위에서 교양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여대협 공간단위가 내용을 가지고 잘 설 수 있도록 2월에 중앙운영위 교양을 함께 실시했고, 그 속에서 서여대협은 '누가 무언가를 던져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곳'이라는 공유를 이루어냈습니다. 모든 지구운영위에서 이런 교양이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사업마다 중앙운영위, 지구운영위가 지구, 학교 상황에 근거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가지고 토론을 활성화시켜나갔고, 총노선을 중운위가 책임지고 중집과 함께 세웠으며, 윤금이사건, 농활, 기활 등 대중사업을 책임져나갔습니다. 점차 지구운영위에서도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모습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증운위가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임했고, 비록 사후적이기는 했지만 경희대 총여와 동지운영위에서 함께 책임지고 서여대협을 만들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집행단위의 역할을 바로 정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전의 사무국은 증집(정책국/선전국/조직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증집은 골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벗어나서 집행간부들을 챙기고 서여대협과 각 학교의 집행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자기 일로 잡았습니다. 비록 사안 중심이었지만 정책국 연석회의, 선전주체 연석회의를 시도하면서 그들의 문제의식을 모으려고 했고, 기활, 농활에서 각 학교 주체들의 모임도 진행되었습니다.

서여대협 중앙에서 각 학교 총여 간부들까지를 포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간부들과 서여대협 중앙이 따로 따로 사업했던 문제를 극복하고, 최대한 학교 간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사업하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운영위에서, 지구의장님과 집행국의 학교하방을 통해서, 여름에는 간부수련회를 통해서 학교 간부들을 포괄하는 서여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서여대협 사업의 주체가 집행국에서 골간으로 변화한 점입니다.

총노선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대중사업에서도 증운위원과 각 지구 운영위원들이 주체로 서서 중앙과 지구, 학교가 이러한 사업을 학우들에 근거해서 함께 통일적으로 벌여나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여대협 하면 집행국 뿐만 아니라 의장님과 지구의장님이 먼저 생각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장님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고민이 된 것도 커다란 변화요 성과입니다.

두번째 성과는 중앙운영위, 지구운영위가 안정화된 점입니다.

우선 증운위와 지구운영위 등 연대단위를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가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참가하는 운영위원들의 생각이 뭔가 얻어가는 조직에서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주체들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진 것이 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운영위의 내용도 보고와 결의 중심에서 논의해서 통일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여대협 조직정비를 시작한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나타났지만, 골간단위를 세워나가는 데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상반기 조직운동에서 아직 풀지 못한 문제점

① 각 학교에 대한 지도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서여대협 중앙집행부가 대중의식화 지침과 대중사업 조직사업 정책을 각 학교의 흐름에 맞게 생산하여 통일적인 지도를 확보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지구와 증운위에서도 내용이 더 풍부해지지 못했습니다.

② 총여 조직사업이 골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총노선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총여학생회에서는 운영위, 여대표자회의 등 조직골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조직강화사업을 '여학생소모임'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또 조직강화사업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작더라도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힘을 모아내는 데서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었고, 분산적이고 개별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4) 이후 조직운동의 발전방향

①서여대협 공간단위가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의장, 증운위, 지구운영위의 내용적 논의력과 집행책임력을 더욱 높여서 명실공히 골간답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릭 위해서는 각 학교 총여에서 회장님이 지구운영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총화하고 꼭 학교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②총여 조직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총여가 대중조직 골간을 강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운영위, 여대표자 연석회의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도를 내와야 할 것입니다. 조직강화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내야 할 것입니다.

③서여대협, 총여 집행국을 인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여서 집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서여대협에서는 현재의 집행국 인원으로는 지구운영위, 중앙운영위를 보좌하는 사무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역할, 정책 역할과 교육선전역할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고, 각 부서의 사업을 전문화하고 학교 집행부서를 어느 정도나마 통일시켜서 부서별로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한 만남과 연석회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5) 하반기의 과제

①서여대협, 학교 각 단위의 조직상황에 대해 평가해보고 내년도 조직개편방향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운영위에서는 회장단의 지위와 역할, 지구운영위 강화방도를 중심으로해서 총여 전반적인 조직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각 집행부서는 집행력 강화를 위한 집행부 조직개편 방도를 내오고 이를 서여대협으로 모아야 합니다.

②서여대협 중앙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모으면서 인선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구, 중앙운영위, 중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3. 대중운동 측면에서

1) 상반기 대중운동 좌표

“여학우들 삶의 모든 영역,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가 될 토대를 닦자”

서여대협은 이러한 좌표의 첫단계를 여학우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대중운동 내용으로 제기하고 여학생 대중운동의 영역을 넓히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전문화하자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6기까지 서여대협 대중운동의 성과적 경험과 뼈아픈 교훈에 기초하여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서여대협은 보은 친관 석방운동을 하면서 여학생회 간부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놓아야 여학우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취업차별 철폐운동을 평가하면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여대협은 “사건 터지면 대응하기 바쁘다” “여학우들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모아내지 못한다”는 간부들의 평가를 모으면서, 여학우들의 관심과 요구를 모아서 구체성있게, 계획적으로, 또 조직의 힘을 키우며 사업해나가야 할 때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7기 서여대협은 이러한 성과와 교훈을 이어받으면서 한단계 발전하는 대중운동을 위해 상반기동안 즐기치게 노력해왔습니다. 대중운동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대중운동을 잘 하기 위한 서여대협 조직정비에 대해서만 먼저 봅시다.

2) 대중운동을 잘하기 위한 서여대협 조직정비

두드러지는 것은 서여대협 중앙단위의 정비입니다.

우선 중집에서는 대중운동 영역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각 영역에 담당을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농활은 누가, 성폭력싸움은 누가 하는 식으로 일 터지면 일을 나눠맡았지만, 올해는 먼저 주체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고 만들어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①투쟁사업: 남녀평등화투쟁/ 학원자주화투쟁/ 자주통일투쟁

②연대사업: 여성농민연대사업/ 기지촌여성연대사업/ 탁아연대사업

중앙운영위에서도 93년 총노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각자 영역을 나누어 중집 내 담당자와 논의를 함께 하면서 대중운동 영역 하나 하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갔습니다. 윤금이누이 투쟁에서 대책위가 꾸러지고 위원장이 중운영위에서 나온 것, 기활과 농활에서 각각 추진위가 꾸러진 것은 중운영위가 서여대협 대중운동을 책임지려고 노력한 성과이자, 각 사업을 힘있게 해나가는 기본동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활과 농활에서는 지구 추진위까지 꾸러져서, 지구 운영위에서도 서여대협 사업을 지구사업으로 만들어내면서 책임지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운동을 주도면밀하게 맞이하고 해보겠다는 생각이 합의되고 사람의 역할 변화까지 이어진 것이 서여대협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에, 한편으로는 한계가 또한 나타났습니다.

우선 중집을 보면 대중운동 담당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정책, 조직, 선전사업이라는 조직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해야했고, 대중운동도 각자 두 영역씩 맡게 되면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 계획 속에서 맡은 대중운동 영역을 꾸준히 발전시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운영위, 지구운영위 주체로서도 학교와 지구 사업 부담이 많은 속에서 전체를 포괄하고 총화해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차원으로는 대중운동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학교단위에서 해오름, 여성학교 등 일상사업의 경험은 쌓이고 있지만 사실상 서여대협의 중심사업이 되는 투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성폭력추방운동은 이렇게’라는 식으로 경험이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여대협에서 해나가는 대중사업이 학교전체의 대중사업으로 함께 힘을 합쳐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 회장 혼자서 일로 되어버리는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제 7기 서여대협은 여학생 간부들, 여학우들과 함께 우리의 삶, 이 땅 여성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제 7기 서여대협의 대중운동은 주체의 결의와 준비에서부터 이전의 대중운동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상반기 대중운동 사업별 평가

상반기 서여대협 차원에서 했던 대중사업은 크게 투쟁사업(윤금이 누이 살해미군 처벌투쟁), 연대사업(기활, 농활), 행사사업(전국 여학생 한마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참조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중요한 평가만 쓰겠습니다.

①투쟁사업

상반기 서여대협은 남녀평등화투쟁, 학원자주화투쟁에서는 조사연구와 이후 방향을 내을 준비를 하는 것, 자주통일투쟁에서는 윤금이 누이 살해미군 처벌투쟁과 7-8월 범민족대회를 중심으로 한 자주통일운동을 책임지고 벌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녀평등화, 학원자주화투쟁에서는 총노선 세울 당시 약간의 실태파악과 대안 모색이 이루어졌고, 자주통일운동은 2-3월 네 차례의 공판투쟁, 서명운동, 7월 10일 클린턴 방한 반대투쟁까지 이어진 윤금이 누이 살해미군 처벌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벌여졌고, 그 성과를 이어받으려 한 7-8월 범민족대회에 즈음한 사업과 4월 13일 정신대 수요시위도 진행되었습니다.

남녀평등화투쟁, 학원자주화투쟁에 대해서는 조사연구와 이후 방향을 세우는 일이 더 진행되어야 하니 평가는 뒤로 미루고, 자주통일운동, 그 중에서도 윤금이 누이 투쟁을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올 자주통일운동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여학우들이 이 땅 여성의 현실로부터 자주통일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운동을 벌어나가는 경향이 여학생회, 서여대협 안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여학생회가 누구보다 소리높게 반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여학생 자주통일운동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자주통일이라는 대의가 여학우들의 삶, 여성들의 삶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윤금이누이 투쟁을 통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요구가 운동세력 전체의 것으로 되고 상설기구까지 건설하게 되는 성과를 남겼다면, 여학생회로서는 외세에 짓밟히는 여성, 기지촌 여성문제를 여학생회의 내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윤금이누이 투쟁을 벌여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서여대협의 대중운동수준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서여대협에서 책임지자는 결의를 하게 된 동력은 학우들, 특히 여학우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금이 누이의 참혹한 죽음에 분노하고, 고쳐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여학생회에서 무엇이랴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던 학우들의 모습에서 서여대협은 어쨌건 한번 해보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 여성의 현실에 대한 여학우들의 관심이 살아 있고 여성을 짓밟는 사회모습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여학우들의 요구에 실제 여학생회, 서여대협의 지도력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봅시다. 여학생회 간부들이 이 투쟁에 열의를 갖고 대자보 한장이라도 먼저 쓰고 서여대협 중앙운영위원들이 공판투쟁, 서명운동에서 학우들을 책임있게 지도하면서, 서여대협은 윤금이 누이 투쟁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나가는 조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싸움을 해보자, 이번 재판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자 정도로는 투쟁지도 역할을 했지만, 학교, 단대, 과, 여학생회 일꾼들이 학우들과 함께 투쟁을 벌어나갈 수 있게끔 내용적으로 투쟁을 이끌어가지

는 못했습니다. 식민지 여성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전체의 의식화흐름에서 주도권을 잡았어야 했는데, 학생회 골간의 의식화내용이 반미문제에만 머물렀고 여학생회 의식화내용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여학생회에서 의식화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이 투쟁에 대한 여학생회의 의식화사업이 대부분 학생회와 별다른 바 없는 '반미'주장(기지촌 여성문제가 빠진), 사건 홍보, 재판보고에 머물렀고, 대부분은 간부 중심의 공판투쟁 일색으로 되어서 과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서명운동, 엽서보내기 운동으로만 제기되고 실제로 과사업과 참여사업, 서여대협 사업이 엮나가는 모습이 내내 나타났습니다. 과에서는 할 일이 없고, 중앙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②연대사업

여성농민/기지촌여성/탁아연대사업으로 세분하여 잡았으나, 탁아연대사업은 여학생회에서 시도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여회와 별 연관성없이 떨어져나가있는 상황이라서 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사업해야 하는지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제쳐두고, 실제 진행된 여성농민/기지촌여성연대사업을 평가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여름농활, 기활 중심으로 되었고, 5월부터 지구단위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였습니다. 추진위 구성과 함께 남은 올 연대사업의 성과는 주체적인 연대사업, 조직적인 연대사업으로 발전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농활에서는 학우들이 여성농민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배워야 할 점을 분명히 하려고 했고, 각 지구-도 여농과 조직적인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활에서는 최초로 기활추진위가 꾸려져서 주한미군범죄 근절투쟁의 맥을 잇고 여름 자주통일운동의 한 형태로서 기활을 준비했습니다. 조직적 준비의 성과로 무엇보다도 들어가게 된 단체가 늘어났고, 지구별 교양학교, 하루기활 등 새로운 시도가 많아, 앞으로 기활이 좀 더 확산되고 내용적으로도 충실히 채워지며, 기지촌 뿐만 아니라 다른 매춘 지역단체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았습니다.

농활, 기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기본적인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양이 부족한 채로 활동지역에 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던가 느끼고 오자는 목적의식적인 내용의 교양이 앞서나가서 실제 활동에서 대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농활에서 여성농민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 끈 놀이, 노래 등 강습은 별로 없이 윤금이누이 사건과 쌀수입 개방문제를 반미로 모아나가는 방향만 제시된 것, 기활에서 놀이방 활동의 구체적 교양없이 기지촌 여성을 만나고 반미감정을 느끼는 데 기초적인 내용만 교양된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서여대협이 본활동까지를 총괄하지 못하므로(주로 역량 문제라 많지요) 본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별단위로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활에서는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각 팀이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는데도 팀별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나기까지 되었습니다.

③행사사업

서여대협 상반기 총노선에는 행사사업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여대협 자체의 일상행사(가령 출범식 등)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증거겠지요.

행사사업으로는 한총련 출범식 서여대협 준비위를 꾸려서 준비한 전국여학생 한마당이 있습니다.

올해 행사사업에서는 전국의 청년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자부단, 한마당 프로그램 참여 등 서여대협 학우들이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총노선 속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었기에 학교 일상사업에서 모아진 학우들의 흐름이 서여대협 차원으로 모아지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 상반기 대중운동 총평

총평은 93년 상반기 대중운동의 목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하겠습니다.

① 여학우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대중운동 내용으로 제기한다

여학생대중운동은 여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를 자기 내용으로 하여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학생 '대중' 운동이 아니라 여학생 '간부' 운동이 되고만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나 학원자주화운동에서 여학생대중의 내용 없이 여학생간부들만 다른 단위 간부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여학생' 간부라는 이름만 내걸고 참가할 때 그 소외감과 고달픔, 여회 간부라면 한 두번씩은 다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여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관심 가지는 문제도 최대한 여학우의 삶과 연결시켜서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학우들 스스로가 자기 일로 여기고 움직이는 것이 여학생 '대중' 간부가 벌여야 할 여학생 '대중' 운동입니다.

이 여학생대중운동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정확히 근거해서 나아가게 하려는 노력이 덧붙여지면 그 방향을 여성해방과 자주 민주 통일로 두게 됩니다. 여성해방도 자주 민주 통일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고, 여학생은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도 여성으로서 받은 차별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에 상반기 사업을 비추어봅시다.

우선 성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윤금이누이 투쟁에서 여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 땅 여성의 현실을 가지고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한미관계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여학생운동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반미의식을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학우들이 직접 느끼는 연애, 성폭력, 취업, 학교내 봉건적 의식과 대우, 가족 내에서 봉건적 대우 등 여학우들이 겪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업이 벌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면 좀 더 대중적인 힘을 모으고 그 힘을 자주 민주 통일의 대의로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보은 진관 석방운동에 대해서도 여학우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여학우들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었기에, 운동이 여학생들 차원으로 계속되려면 여학우들이 겪는 학내 성폭력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이 여학생들의 운동으로 되려면 진짜 여학생들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데까지 운동 대중화의 요구수준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금이누이 투쟁, 자주통일운동도 직접적인 여학우들의 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나를 밝히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어나갔다면 좀 더 여학우들과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앙운영위에서 대중운동에 대한 고민을 초기부터 각 단위와 함께 해나가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 학교, 지구의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을 단위가 바로 중앙운영위이고, 여학우 대중에 근거한 사업을 할 때 중앙운영위가 진정한 자기 역할-15만 여학우의 조직인 서여대협의 최고결정단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여학생대중운동의 영역을 넓힌다

제 7기 서여대협은 여학생대중운동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투쟁사업-남녀평등화투쟁/학원자주화투쟁/자주통일투쟁

연대사업-여성농민연대사업/기지촌여성연대사업/탁아연대사업

시작하는 초기이니만큼 지난 시기에 각 학교에서 어느 만큼 해왔던 일을 정리 해본 것입니다.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곧, 남녀평등에 대한, 자주통일에 대한 여학우들의 요구를 여학우 처지로부터 모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간 서여대협이 밝혀 온 여학생대중운동 영역은 취업차별 철폐운동(89년 남녀차별 모집광고 4개기업 고발), 성폭력추방운동(92년 보은 진관 석방운동), 탁아/기지촌여성/여성농민 연대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꾸준히 진행해가면서 학교별로 분산적으로 되었던 학자, 자주통일투쟁을 서여대협 차원에서 여학우들에게 맞게 모아보는 것이 상반기 대중운동 영역 확장의 수준이었습니다.

'여학생대중운동 영역확장' 문제의식은 상반기 동안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윤금이 누이 사건을 통해 여학우들이 자주통일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이 경험은 장기적으로 기지촌 여성, 외세에 짓밟히는 여성들과 함께 하면서 자주통일운동을 벌어나간다는 의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여대협의 수준 상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영역의 사업을 개척해나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습니다. 한해 정도를 꾸준히 자기 사업으로 해야만 사업영역이 자신의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었다면, 또 다른 영역, 미처 확장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후 과제로 남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나씩 꾸준히 개척해나가야겠습니다.

다만 문제로 지적해야 할 것은 상반기 총노선을 잡을 때, 대중운동 영역을 나누는 데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세의 중심사안이 되기 쉬운 민주화 투쟁, 서여대협 차원의 일상행사사업이 빠졌습니다.

서여대협의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나가려면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일들이 연대조직(한총련, 서총련 등)과 각 학교 중학생회의 중요한 사업이 되고 서여대협에서도 요구될 때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③ 전문화를 꾀한다

대중운동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전문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자기 집행국(부) 사업에 전문적인 집행 일꾼들이 단위마다 나와야만 조직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성폭력, 취업 등 여학생대중운동의 내용이 될 것들에 대해 장기방향과 단기 전술까지 내올 수 있는 일꾼들이 생겨나야 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해 성과적으로 했던 일도 그 다음 해에 가면 주체가 바뀌면 잘 되지 않는 것 역시 서여대협 조직에 사업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문화는 무척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각 국(부)별 사업도, 각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각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역할 전문화 이전에 집행부 사이에 역할분담이 매우 불분명하게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전문화를 위한 노력에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지 못했습니다. 계획없는 전문화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전문화는 시작단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서여대협 정책국/ 교육선전국 정도는 확실히 전문화를 지향하고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중 운동 정책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게끔 정책국 역할을 배치하고 대중사업정책을 담당하는 학교주체까지 함께 대중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운동 총노선에 근거한 총평은 끝났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사업을 할 때, 그간 서여대협의 포괄수준은 어디까지이며 학우들에게 다가서는 데 어떤 문제가 가로놓여있었는지, 곧 서여대협 대중사업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내오는 일이 총노선을 세울 때 빠져있었다는 점입니다. 윤금이누이 투쟁을 통해서 확인되는 서여대협 대중사업의 수준은 함께 할 사업은 제기하지만, 사업 진행 중에 중앙과 기층의 힘을 통일적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각 단위에게 맡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5) 이후의 발전방향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사업 속에서 지도를 구체화시키고 서여대협, 총여학생회로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여대협 중앙에서 기층까지 통일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좀 더 통일적으로 사업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집중한다면, 다음을 대중사업할 때 원칙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식화사업에서 : 여학생의 관점을 견지하고 주도적으로 의식화사업을 벌이되,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모든 간부가 의식화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화, 투쟁 사업에서 : 기층, 저학년 간부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높여서 여학우 대중의 정서에 맞고, 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대중사업에 도입해야 합니다.

6) 하반기의 과제

① 성폭력특별법제정은등을 벌여나가면서 성폭력사업영역을 개척해나갑시다.

② 대중운동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각 학교 사업의 경험을 모으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나갑시다.

4. 중평

93년 상반기 서여대협은 사상운동에서, 조직운동에서, 그리고 대중사업에서 알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좀 더 간부들, 학우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나가며 그들의 힘으로 여학생과 여성들의 처지를 바꿔나가는 사업을 벌여나가려고 했고, 그 속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여대협이 이렇게 발전하면 되겠다, 여학생운동이 이렇게 나가면 확실히 성공하겠다하는 뚜렷한 방침이 간부들 속에서 공유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 단계 발전했으되, 그 발전이 그리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총화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여대협은 이렇게 사업해나가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발전방향과 하반기 과제를 함께 읽어보고, 하반기 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학교 총여의 발전방향까지 모아봅시다.

서여대협 간부들은 누구나 원대한 미래를 앞에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명실상

그러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서여대협 차원으로, 여학생회 차원으로 함께 하자는 의지가 모아지는 대중사업에서 중앙과 기층이 통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잘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힘을 기반으로 하여 올해 시도했듯이 전체적인 고민을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조직의 발전을 기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맺습니다. 서여대협 자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학교의 발전방향을 내오는 데서 서여대협 상반기 총화를 참조하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